

조정래의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에 대한 고찰

김 학 동*

目 次

1. 머리말
 2.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이 안고 있는 문제
 - (1) 전라도 방언에 대한 대응과 그 한계
 - (2) 원작과는 다른 구조와 소재목
 - (3) 독자를 의식하여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원작의 내용
 - (4) 시나리오 형식의 문장이 서술체로 변형된 것에 대한 의문
 3. 맺음말
-

1. 머리말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은 1999년 10월 제1권의 발행을 시작으로 2000년 6월에는 전10권에 달하는 장편의 발행을 마쳤다. 발행처는 호무샤(ホーム社), 발매처는 슈에샤(集英社)이다.

『태백산맥』은 작가 조정래가 1983년에 기필하여 1989년에 각필하였으므로 약 6년에 걸친 세월이 소요 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일본어 번역은 1992년에 시작하여 1999년에 완결함으로써 약 7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그것도 4명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탄생한 일본어 번역본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만큼의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한국문학의 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로 근·현대의 한반도 역사가 얼마나 치열하고 처참한 것이었는지를 일본의 독자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의 분단과 민족 분열이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식민지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근대화된 한국이 존재한다는 식의 어리석은 논리전개를 차단시키는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것이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이라고 단정해도 좋다는 것이다.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재일한국인 문학 전공

그러나 하나의 문학작품을, 그것도 대하소설과 같이 긴 작품을 본래 쓰인 언어와 다른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또 한계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태백산맥』의 일본어 번역본도 예외 일 수가 없었다. 더욱이 『태백산맥』은 조선 민족만의 독특한 정서를 가득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로 옮기는데 있어서 넘기 어려운 한계로 번역자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번역의 한계와 관련하여 번역자들의 자세와 실제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결코 그들의 노고를 폄하 하려는 것이 아니고,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의의를 보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에 의한 것이다.

2.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이 안고 있는 문제

조정래의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필설로는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의 보편적인 사고와 감정의 흐름은 무난하게 번역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민족 특유의 정서까지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의 독자를 의식한 타인지 의도적인 원문의 생략과 변형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1) 전라도 방언에 대한 대응과 그 한계

『태백산맥』을 접한 한국의 독자들은 작품 속에 구사되는 토속적 정취가 듬뿍 담긴 전라도 방언, 그 중에서도 별교의 말에 매료되어 버린다.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는 줄거리를 감싸 안는 감미로운 사투리 덕분에 밤잠을 줄여가며 읽어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언의 구사와 관련하여 작가 조정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는 작가로서 우리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 있다면 모국어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는 나의 생각의 터전입니다. 특히 전라도 방언은 내 문학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썼던 사투리들을 소설을 쓰면서 새롭게 기억해 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메모를 해두고 그 용례를 생각해 봅니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투리들을 직접 써 보고 그 말을 살려내려고 애씁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면 도저히 그 분위기를 살려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¹⁾

1) 권영민(2003) 『태백산맥다시읽기』 해냄출판사, 305쪽

시인인 고은(高銀)은 전라도 사투리와 관련하여 「특히 이 소설의 사실성을 가장 생명적이게 한남도 사투리의 천재적인 구사는 작가가 제 어린 시절로부터 떠난 몇 십년 뒤의 서울에서 가능했다는 것이 거짓말처럼 들릴 정도로 완벽한 것이다. 민중의 언어는 민중의 생존권이 억압된 모순 가운데서 거의 유일한 민중성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 사실이 이 소설에 생채(生彩)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²⁾라며 극찬하고 있고, 서울대 권영민 교수는 작가 조정래와의 대답에서 「호남 지방의 사투리를 소설 속에 그대로 살려낸 것도 주목됩니다. 우리 학교의 전공 교수 가운데 방언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있는데, 선생님 소설의 애독자입니다. 그분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전라도 방언을 가려내어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소설 속의 ‘방언사전’을 만들어도 되겠다고 흥분했어요. 엄청난 어휘량이라는 겁니다.」³⁾라는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찬사는 일일이 다 언급하기 어려우리만치 많은 평론가들의 거의 공통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전라도 방언의 구사를 일본어 번역본 『태백산맥』에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번역자 중의 한사람인 쓰쓰이 마키코(筒井眞樹子)의 번역후기를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번역작업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난관은 방언문제였다. 『태백산맥』의 무대인 별교의 방언은 칙칙하다고 할 만큼 인간미가 넘치는데다가 한국인조차도 다른 지방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중략)

한국인도 잘 모르는 방언은 당연히 사전에도 수록 되어 있지 않았다. 문맥의 전후 관계를 통해 의미를 추측하기도 하고, 감수자인 윤학준(尹學準) 선생께 여쭙기도 하면서 간신히 의미를 파악해 내긴 하였지만, 이를 다시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난제였다.

일본어판 『태백산맥』에서는 일본의 어느 특정 지역의 방언이 아닌, 토속적인 시골말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열자인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선생의 방침이었다. 무대가 외국인 이상, 어느 지방이든 간에 일본의 방언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한정되기 쉽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시골말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⁴⁾

번역에 임한 역자들의 고뇌가 생생하게 전달되어 일종의 안도감마저 주고 있는 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라도 방언의 번역 문제를 둘러싸고 번역자들이 고뇌하여 얻은 결과는 일본인들이 보편적인 시골말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무난한 일본어를 채택하는 것이었다.

2) 고은 외 7인(1991) 『문학과 역사와 인간-『태백산맥』의 소설적 성과와 통일문학의 전망』, 한길사, 116쪽.

3) 상계주1) 304쪽

4) 일본어판 『태백산맥』 제10권, 역자의 후기 〈언어의 바다 속에서〉, 442쪽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임의에 의함.

이러한 선택은 『태백산맥』을 최상의 문학작품으로 끌어 올리고 있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이 번역자들의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 보면 또 다른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작가 조정래는 『태백산맥』과 관련된 좌담회에서 자신의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저는 작품 속에서 많은 부분을 민중의 삶과 진실을 그려내는 데 할애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 우리 민족의 풍습이나 민속……특히 우리 민족의 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규명해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작품의 주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중들의 ‘생체언어’니 ‘육체언어’니 하는 말들을 만들어 냈고, 한이 단순히 정서가 아니라 역사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웅집된 원소’ 같은 것이라는 논리적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투리의 사용도 그러한 민중성의 효과적인 표현수단의 하나로 동원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경우 어떤 제한적 한계에 부딪힐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어떤 언어의 작품이든지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미세하고 섬세한 감각이나 그 민족 특유의 정서감이나 특질 같은 것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⁵⁾

이러한 언급으로 보아 스스로의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될 경우 여러 가지로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하더라도 번역을 대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고, 번역자들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한계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번역에서 넘어야 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재량의 범위는 어느 선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주인공의 한 사람으로 무당 월녀의 딸인 소화가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변신해 있는지를 예로 들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원작에서의 그녀는 순수한 벌교 토박이로 완벽한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으나 번역본에서는 완벽한 표준어를 사용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자의 한사람인 야스오카 아키코(安岡明子)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원작에서는 방언과 표준어를 사용하는 인물들이 분류되어 있었던 것을, 읽기 쉽게 한다는 원칙을 제일로 하여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하였다. 그러한 선별의 근거와 관련하여 많은 토론을 거쳤다. 예를 들면 〈소화〉. 그녀는 무당이고 당연히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인인 정하섭과의 淸冽한 사랑을 속삭이게 하기 위해서는 〈오라(お

5) 고은 외 7인(1991) 『문학과 역사와 인간- 『태백산맥』의 소설적 성과와 통일문학의 전망-』, 한길사, 28쪽

ら) 〈아타시(あたし)〉라는 일인칭보다는 〈와타시(私)〉가 어울린다고 판단하여 결국은 표준어로 하지는 결정을 내렸다.⁶⁾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새로이 탄생한 일본어 번역본의 여주인공 〈소화〉는 원작을 읽어 본 독자로 하여금 상당한 위화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별교 태생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무당이 된 소화는 염상진이나 정하섭 등이 받은 고등교육과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별교의 토속적인 사머니즘에 토대를 두고 있는 시골 처녀이다 그런데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서울에서 막 이사 온 무당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야스오카의 「청렬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마치 일본의 시골말로는 청렬한 사랑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설사 일본의 시골말을 도입함으로써 소화의 일인칭 호칭에 부자연스러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작품 속 인물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전라도 방언의 완벽한 구사로 찬사를 받아온 원작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번역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다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원작이 훼손되는 번역을 하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번역자의 재량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원작과는 다른 구조와 소제목

『태백산맥』의 일본어 번역본은 전 10권의 각 권에 표제가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장의 소제목도 원작과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작과 번역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

《원작의 구조》

- * 제1부 — 〈한의 모닥불〉 — 제1, 2, 3권
- * 제2부 — 〈민중의 불꽃〉 — 제4, 5권
- * 제3부 — 〈분단과 전쟁〉 — 제6, 7권
- * 제4부 — 〈전쟁과 분단〉 — 제8, 9, 10권

《번역본의 구조》

- * 제1권 — 白い花という名の巫堂 (하얀 꽃이라는 이름의 무당)
- * 제2권 — 天空をさすらう雲 (하늘을 떠도는 구름)

6) 일본어판 『태백산맥』 제10권, 역자의 후기 〈이백 이상의 인물 파일〉, 443쪽

- * 제3권 — 全羅道の悲しみ (전라도의 비애)
- * 제4권 — トラジの歌 (도라지의 노래)
- * 제5권 — 歴史の逆流 (역사의 역류)
- * 제6권 — 女バルチザンの死 (여자 빨치산의 죽음)
- * 제7권 — 鴨綠江の苦い水 (쓰디쓴 압록강 물)
- * 제8권 — 骸骨の隊列 (해골의 대열)
- * 제9권 — 奪われていく解放區 (빼앗기는 해방구)
- * 제10권 — 冬とともに逝った英雄 (겨울과 함께 떠난 영웅)

위의 비교로 알 수 있듯이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원작의 구성과는 달리 각 권을 독립시켜 각각 새로운 제목을 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원작과는 달리 각 권마다 새로이 제목을 붙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각 권의 각 장에 붙인 소재목을 상당부분 원작과 다르게 바꾸어 놓은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면관계상 3개소 이상의 소재목이 바뀌어 있는 권만을 표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2권》

* ()의 우리말은 원작과 다른 내용을 필자의 임의로 번역해 놓은 것임

原作 『太白山脈』		日本語譯 『太白山脈』	
11	체포	第1章	逮捕
12	구만리 장천을 떠도는 구름	第2章	果てしない天空をさすらう雲
13	냉철한 비판을 생리로 가진 역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第3章	歴史の生理 (역사의 생리)
14	까마귀떼	第4章	カラスの大群
15	기습이다	第5章	奇襲だ!
16	감꽃은 먹을 수 있는 꽃	第6章	柿の花は食べられる花
17	배고픔과 동물과 인간	第7章	人間の條件 (인간의 조건)
18	수혈 (受血)	第8章	まじりあう命 (섞이는 생명)
19	새가 창공에 그 발자국을 새기지 못하듯이 인간사 그 무엇이 영겁 속에 남음이 있으랴	第9章	國の行く末を予言する歌 (나라의 장래를 예언하는 노래)
20	토벌대 물러가라!	第10章	討伐隊は出て行け!

《제3권》

原作 『太白山脈』		日本語譯 『太白山脈』	
21	탈주제보	第1章	一本の電話 (한통의 전화)
22	병원사건	第2章	病院事件
23	계엄군 주둔	第3章	戒嚴軍駐屯
24	분노의 소작인	第4章	小作人の怒り
25	농민, 그 사무치는 설움	第5章	農民、そのやるせない悲しみ
26	겨울달빛 실린 고살길	第6章	冬の月明かり射す村の小道
27	우리의 국토를 양단시킴으로서 민족을 분열시키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려 한다 - 백범 김구	第7章	民族と理念と (민족과 이념과)
28	아버지는 얼굴도 몸도 빨건디는 하나도 옳는디 워쨌 사람들은 아버지 보고 빨갱이라고 할까?	第8章	父ちゃんはなぜアかって呼ばれるの? (아버지를 왜 빨갱이라고 하는 거야?)
29	대나무 전설	第9章	竹の伝説
30	전라도	第10章	全羅道
31	읍내를 에워싼 불길	第11章	町を取り囲んだ烽火

《제7권》

原作 『太白山脈』		日本語譯 『太白山脈』	
14	살아서 돌아온 그들	第1章	生還した戦士たち
15	김범준의 귀향	第2章	長男の歸郷 (장남의 귀향)
16	양쪽을 다 미워하는 아이	第3章	どちらも憎む子
17	무상몰수 무상분배	第4章	無償沒收、無償分配
18	위메, 논두렁 콩알까지 시고, 울안 감나무 감까지 시는 저런 법은 워디서 나온 법이드랑가!	第5章	粟粒まで數える課税調査 (줍쌀까지 세는 과세조사)
19	고구마똥	第6章	さつまいもの糞
20	소용돌이	第7章	渦巻き
21	구빨치 그리고 신빨치	第8章	新旧のバルチザン (신·구 빨치산)
22	너희들을 위한 전쟁	第9章	お前たちのための戦争
23	몸씻기 마을굿	第10章	禊のクツ
24	넌편이고 아덜이고 열썩이라도 못당 하겠다, 요런 징글징글헌 눈에 시상!	第11章	息子が十人いたって足りやしねえ (아들이 열 있어도 모자란다)
25	우리 아버지가 하대치요	第12章	おらの父ちゃんは河大治だ
26	압록강의 물을 마시며	第13章	鴨綠江の苦い水 (압록강의 쓴물)
27	똥냄새 김치냄새의 나라	第14章	人糞の臭い、キムチの臭い (인분 냄새, 김치 냄새)

《제8권》

原作 『太白山脈』		日本語譯 『太白山脈』	
1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第1章	咆哮する虎 (포효하는 호랑이)
2	아시아인은 미국인과 동등하지 않다. 아시아인은 인간이 아니며, 인간이하의 존재다	第2章	アジア人は人間以下だ (아시아인은 인간 이하다)
3	탈출	第3章	脱走
4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	第4章	國民防衛軍 (국민방위군)
5	1951년 1월 4일	第5章	死の隊列、骸骨の隊列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
6	거창, 그 오지의 낮과 밤	第6章	谷間に舞うカラスの群れ (계곡을 맴도는 까마귀 무리)
7	빨치산, 그 이름없는 사람들의 진정성	第7章	バルチザン、その名もなき人々の心 (빨치산,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마음)
8	천점바구와 외서덕	第8章	妻たちの闘い (아내들의 투쟁)
9	다시 삼팔선 전선	第9章	再び38度線で
10	세상을 떠난 김사용	第10章	野辺の送り (장례식)
11	재귀열이란 돌림병	第11章	回歸熱という流行り病
12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	第12章	蝶の飛ぶ5月(나비가 나는 5월)

《제9권》

原作 『太白山脈』		日本語譯 『太白山脈』	
13	위대한 전사 조원제	第1章	偉大な戦士
14	덕유산의 비밀회의	第2章	徳裕山の秘密會議
15	사형대신 싸야 하는 수기	第3章	命と引き換えの手記
16	항미 소년 돌격대	第4章	抗米少年突撃隊
17	장마와 함께 온 휴전회담 소식	第5章	梅雨とともにきた休戦會談の知らせ
18	새로 생겨나는 반공세력	第6章	憎しみが生み出す反共意識 (중오가 만들어 내는 반공의식)
19	어차피 한번 죽는다	第7章	どうせ一度は死ぬ運命 (어차피 한번은 죽을 운명)
20	포로의 섬, 거제도	第8章	捕虜の島 (포로의 섬)
21	빼앗겨가는 해방구	第9章	奪われ行く解放區
22	호산댁	第10章	虎山宅の涙 (호산댁의 눈물)
23	이동 준비	第11章	移動準備
24	지리산	第12章	智異山

《제10권》

原作 『太白山脈』		日本語譯 『太白山脈』	
25	피아골	第1章	谷間で開かれた相撲大會 (계곡에서 열린 씨름대회)
26	새로운 전술	第2章	新たなる戦術
27	고향에서 몰려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第3章	村を追われる人々
28	지리산 동계대공세	第4章	冬季大攻勢
29	각 도당 동계대공세	第5章	真っ赤に染まる雪 (새빨강게 물드는 눈)
30	각 도당과 지리산의 전면공세	第6章	何という寒さ、何というひもじさ (견디기 어려운 추위와 배고픔)
31	또 하나의 전장터, 포로수용소	第7章	もう一つの戦場—捕虜收容所
32	천점바구의 죽음과 동계대공세 종료	第8章	戀人たちの死 (연인들의 죽음)
33	오이년 오일오 결정	第9章	思いがけない慶事 (뜻하지 않은 경사)
34	제5지구당 결성	第10章	第5地区党結成
35	현실투쟁에서 역사투쟁으로	第11章	アカの子供に差し伸べられた手 (빨치산의 자식들에 대한 온정)
36	감옥살이도 역사투쟁이다	第12章	それぞれの歴史闘争
37	겨울과 함께 떠난 영웅 이태식	第13章	冬とともに逝った英雄
38	휴전선으로 변한 삼팔선	第14章	闇の彼方に煌めく星 (어둠 저편으로 반짝이는 별)

위에 예시한 표와 같이 원작의 내용과 다른 각장의 소제목을 권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1개소, 제2권-3개소, 제3권-3개소, 제4권-2개소, 제5권-1개소, 제6권-없음, 제7권-4개소, 제8권-9개소, 제9권-4개소, 제10권-10개소

『태백산맥』 전 10권은 12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37개장의 소제목이 원작과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소제목의 변형과 관련하여 필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를 일본어로 옮기는 데 있어서 발생하기 쉬운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자들의 임의로 내용이 변질되어 있다는 점이다. 설사 원 저자인 조정래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번역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제10권만을 보더라도 작가 조정래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제목까지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원작의 「현실투쟁에서 역사투쟁으로」와 같은 내용을 「アカの子供に差し伸べられた手 (빨치산의 자식들에 대한 온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현실투쟁’이니 ‘역사투쟁’이니 하는 말들은 『태백산맥』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 중의 하나로 한국에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매우 상징성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동화 같은 내용의 소재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작은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3) 독자를 의식하여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원작의 내용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은 원작의 내용을 상당부분 누락시킨 채 번역을 완료하였다. 한국의 독자들이 크게 감동하여 베스트셀러가 된 원작을 일본인들의 취향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번역의 과정에서 누락시켜 버린다면, 더 이상 작가 조정래의 작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누락시킨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역시 일본의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의 차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열거해 보고자 한다.

① 일본의 독자에게는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는 내용

— (『태백산맥』 제5권, 원작 92쪽, 번역본 114쪽-5행에 이어져야 할 내용)

그런 것은 텃밭농사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텃밭을 단 한 폴이나마 차지할 수 있는 씨앗들은 불문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잎이나 열매를 뜯어내고 따내도 계속 새잎과 새 열매를 피워내고 매달아야 하며, 가을에 이르러서는 내년의 씨앗을 영글게 할 수 있어야 했다. 여자들의 집안농사는 텃밭같이 끝나지 않았다. 헛간이나 뒤란의 구덩이에는 박씨를 넣었고, 담장가의 구덩이에는 호박씨를 넣었으며, 울타리를 따라서는 완두를 박았다. 그때부터 오줌 한 방울 개숫물 한 방울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했다. 잘 삭은 오줌은 채소에 더할 수 없이 좋은 비료였고, 아침 저녁 골 따라 부어주는 개숫물은 채소가 쭉쭉 자라게 하는 어디에도 없는 힘이였다.

— (『태백산맥』 제5권, 원작 92, 94쪽, 번역본 115쪽-14행에 이어질 내용)

베짜기란 베틀신을 꿰 다리를 뻗었다 당졌다 하는 동작에 따라 오른손에 든 북을 날 사이로 민첩하게 밀어던지고, 바다로 날과 씨를 쳤던 왼손은 재빨리 북을 되받아 오른쪽으로 보내야 하고, 그 사이에 오른손은 바다를 치고 다시 돌아온 북을 받아야 하는,

— (『태백산맥』 제6권, 원작 247쪽, 번역본 310쪽-3행에 이어질 내용)

논 여기저기에 머리를 맞댄 사람들이 열댓 명씩 오글거리고, 「어허어이, 담 줄을 놓세그러어!」「얼차 조웃네, 힘얼 쓰소인」 모내기줄을 맞들어 읊기느라고 화답하는 소리가 어기차게 울려 퍼지며 긴 여운을 남기는 들녘에는 모의 초록빛만큼이나 싱싱한 생기가 올랐다.

— (『태백산맥』 제8권, 원작 155쪽, 번역본 184쪽-16행에 이어질 내용)

석구 자신이 앞드려 드나들기에도 힘겨운 낮은 마루밧으로 아주머니가 어떻게 기어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상했지만, 더 회한하고 기막힌 일은 어머니와 큰누나가 장독대를 타고 판자울을 넘어 뒷집으로 피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무리 살펴봐도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뚜껑 하나 깨진 것 없이 말짱했고, 얇은 판자울타리도 어디 한 군데 상한 데가 없었던 것이다. 석구 자신이 밟아대도 항아리 뚜껑은 쉽게 깨지는 물건이었고, 자신이 매달려도 판자울타리는 휘어지고 부러지도록 얇고 약했던 것이다.

「나도 몰르제잉. 정신이 하나또 읊었응께. 급헌 김에 지절로 그리 땀갔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큰누나의 대답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장의 완전한 생략과는 달리 짧게 축약시키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태백산맥』 제9권 (원작 119,120쪽, 번역본 145쪽)을 보면, 솔뚜껑이 죽음을 앞두고 동료들과 함께 「공화국 만세!」「인민 만세!」를 17회나 반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원작에서는 실제로 17회를 반복해서 기술했던 후 「열일곱번재가 끝났다」는 말로 맺고 있다. 그런데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3회 반복한 것만으로 끝맺음으로 해서 「열일곱번재가 끝났다」라는 표현도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인용하는 문장은 다량이 논을 일구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곳 역시 원작의 내용을 3분의 1이하로 줄여놓고 있다. 원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태백산맥』 제10권 원작 10, 11쪽, 번역본 12쪽)

다량이논을 일구자면 먼저 산비탈에 박힌 돌들을 다 파내야 한다. 물론 파낼 수 있는 정도의 돌들을 말하는 것이고, 움직일 수 없는 돌들은 그대로 두었다가 땅을 고를 때 가능하면 논둑으로 이용한다. 돌을 파낸 다음에는 물을 실을 논을 만들어야 하니까 비탈을 수평의 땅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자면 비탈을 직각으로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땅을 한꺼번에 넓게 할 욕심으로 비탈을 마음대로 깊이 깎아서 안 된다. 깎은 높이가 높을수록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커져 산사태의 위험도 따라서 커지고, 깎인 면적이 윗 논둑의 논둑이 되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논둑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산사태도 막고, 논둑의 넓이도 최대한 넓히자면 억지를 부리지 말고 지형에 따라 비탈을 깎아나가면서, 생기는 만큼씩 수평의 땅을 얻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논둑은 구불구불한 추상적인 곡선이 되고, 어느 부분에선 딱 밥소반 만한 땅이 생기게도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비탈을 깎아내려 가면 하나의 산비탈에는 수십 개의 곡선계단이 층을 이루게 되고, 계단마다에는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 다른 수평의 땅이 붙게 된다. 비탈을 깎아나가다가 골이 심하게 파인 부분을 만나게 되면 그 아래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간에서도 땅을 얻어내기 위해 몇 단계로 돌을 쌓아올린다. 그리고 계단마다 흙을 퍼 넣어 골을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땅의 넓이는 쌓아올린 돌축대의 넓이보다 작은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한 치의 땅이라도 넓히기 위해 논둑이 경사진 것이 하나도 없듯이 돌을 쌓아올리는 것도 반듯이 직각쌓기를 한다. 비탈은 그런 식으로 하지만, 개울에 가까워지면 그때부터는 돌쌓기가 본격화된다. 폭넓게 버려져 있는 개울가의 공간을 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돌쌓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돌담

이 아닌 돌논독이 직각으로 쌓여 올라가며 층계를 이루게 된다. 골을 메울 때처럼 그 층마다 흙을 피다부어 땅을 만들어 낸다. 개울과 맞닿는 마지막 돌논독은 그 높이가 사람의 키를 훨씬 넘기가 예사인 것이다. 장마가 저 개울물이 불어나는 것에 대비한 것이다. 그런 논외의 넓이는 돌논독 넓이의 반도 안되기가 예사인 것이다.

이상으로 열거한 내용들은 일본의 독자들에게 번잡하고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탓인지 완전히 생략하거나 축소시킨 부분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번거롭고 지루한 것이 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단지 작가가 의도하는 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읽어 내려갔을 것이다. 대하소설이라는 장편을 읽어 가면서 약간의 장황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고 책읽기를 꺼려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원형 그대로 남겨져야 할 원작의 가능성을 번역의 단계에서 차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② 노골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내용

— (『태백산맥』 제5권, 원작 93쪽, 번역본 115쪽-12행에 이어질 내용)

여자에게 있어서 엉덩이가 실해야 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었다. 엉덩이가 실하지 않고서는 먼저, 남자를 제대로 실을 수 없는데다 애기집이 실할 리 없고, 애기집이 실할 리 없으니 애기가 실할 수 없고, 실하지 않은 애기를 실하지 않은 엉덩이가 무사하게 바쳐낼 리가 없었던 것이다.

— (『태백산맥』 제6권, 원작 304쪽, 번역본 384쪽-16행에 이어질 내용)

그는 팬티를 벗어던졌다. 그를 따라 그녀도 팬티를 벗었다.

— (『태백산맥』 제6권, 원작 247쪽, 번역본 310쪽-3행에 이어질 내용)

세계 사대성인이니, 세계 사대종교니, 세계 사대문명의 발상지니 해서 온갖 것을 세계적인 단위로 분류 정리해가며 밥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 중에서 또 누군가 인간의 삼대발명을 종교·정치·언어라고 한 모양이었지만 그는 그 분류 자체를 우습게 생각했다. 정치라는 것이 인간의 지배욕구의 산물인 것이 분명한데 발명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형태의 정치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허위조작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있는 한 정치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추악한 것이었다. 그 분류자야말로 정치제도가 인간의 행복과 사회의 변성을 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고 맹신하는 단견의 소유자였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좀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을 번역하면서 평범한 산문을 대하는 것 같은 잣대를 가지고 고쳐

나간다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③ 일본의 독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

— (『태백산맥』 제8권, 원작 12, 13쪽, 번역본 12쪽-2행에 이어질 내용)

그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에서 잉태된 '나무꾼과 선녀'의 전설이면서 '견우와 직녀'의 전설인 것이다. 금강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그 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속에 선녀들의 목욕터를 잡은 배경 선택부터가 신비스러운 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탁월한 것이다. 그리고 밤과 낮을 있게 하고, 비와 눈을 내리게 해 인간은 물론이고 만상의 생존을 지배하는 하늘의 그 무한하고 불가사의한 힘에 저항 없는 의문을 갖게 되고, 끝내는 그곳에 이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실현시키게 하는 이야기 전개는 상상력은 더욱 탁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두레박을 몰래 타고 올라간 나무꾼이 아내인 선녀를 다시 만나 하늘나라에서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더라면 얼마나 단순하고 싱거우며, 하늘에 대해 불경을 저지르는 일인가. 나무꾼이 아내를 다시 만나는 대목에서 이야기는 일대전환을 일으켜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져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여기서 동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하늘나라의 존재들과 인간이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늘에 대한 불경을 재치있게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옥황상제가 나무꾼을 추방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그대로 남겨 선녀와 헤어져 살게 하되 일년에 한 차례씩 만나도록 허락한 것은 한번 맺어진 인연의 끈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냄과 아울러 옥황상제의 엄격하면서도 너그러움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너지 못할 강을 사이에 두고 일년에 단 한 번밖에 만날 수 없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목마른 그리움을 더욱 애답게 하면서, 그 비련미를 영원하게 하는 이야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 고비를 넘긴다. 그리움에 사무친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까치라는 것이다. 이 느닷없는 이야기의 끝맺음 뒤에 여운처럼 따르는 말이 있다그래서 칠월칠석 앞뒤로 비가 자주 내리고, 칠석을 지낸 까치들의 머리에는 털이 빠져있는 것이다.....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논리적 과학성이며, 투시적 현상인식이고, 현실적 실감을 증폭시키는 이야기의 구성력인가. 견우와 직녀가 상편의 반가움으로 울고 다시 헤어져야 하는 슬픔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칠월칠석 즈음에는 계절적으로 비가 많은 때이고, 또 견우와 직녀가 밟고 오가는 탓에 까치들의 머리털이 빠진 것이 아니고 칠월칠석을 고비로 까치들은 털갈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들을 유심히 관찰해서 전설에 접합시킴으로써 하늘과 만상과 윤회법칙을 일깨우는 한편, 이야기의 생동적 실감을 송두리째 획득해내는 이중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찌하여 까치에게 만남의 다리를 놓게 하는 고역스러우면서도 보람에 찬 그 선한 역을 맡긴 것일까. 까마귀의 그 시커먼 생김에 비해 까치가 훨씬 보기 좋게 생겼기 때문일까. 결코 그런 표피적인 단순함이 아니었다. 제비가 나락에 기생하는 여러 해충들을 잡아먹는 길조라면, 까치는 나무들에 기생하는 가지가지 해충들을 잡아먹어 산림을 돕는 길조였다. 까치에 비해 까마귀를 흉조로 꺼리는 것은 그 식성이 육식이어서 사람의 시체까지 뜯고 덤비는 까닭이었다. 그리고 까치는 부부가 돈독

해 사랑의 이쁨으로 가슴앓이 하는 건우와 직녀부부를 만나게 해주는 배역을 맡기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또한 그 부부애는 원앙새 다음으로 윤리의 규범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철저한 논리성과 과학성을 바탕으로, 삼라만상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시키면서, 인간의 하늘에 대한 의문과 경배를 가슴 저리는 애절한 사랑이야기로 엮어낸 이런 완벽한 전설이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있는가. ‘세계적이라고 가치부여를 하는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요건을 고루 갖춘 이야기는 없다.

위의 「견우와 직녀」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일본에도 익히 알려져 있는 전설이다.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중국에서 전해져 온 전설이라는 것을 작가 조정래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승화시키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작가만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쉽게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가 일본의 독자를 생각해서 삭제할 것에 동의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가정은 당연히 번역의 과정에서 함부로 원본의 내용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가 의도하는 바 있어 일부러 써넣은 내용이라면, 그것을 읽은 일본 독자들의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가는 작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목적했던 바를 달성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코 생략해서는 안 될 내용인 것이다.

④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이 섞여 있는 문장들

— (『태백산맥』 제4권, 원작 56쪽, 번역본 66쪽-68행에 이어져야 할 내용)

우리가 안내천시상열 일본놈 땡시 일 년얼 다 못 채우고 막음헌 것이나, 일본놈덜이 삼십육 년 동안 우리덜 타고 앉었다가 미국·쏘련 땡시 쫓겨간 것이나, 차이라는 것은 세월의 질고 짊음뿐이다 이것이어.

— (『태백산맥』 제8권, 원작 14쪽, 번역본 13쪽-14행에 이어져야 할 내용)

그 꺼질 줄 모르는 저항투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놈들은 반도땅이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이라는 전설을 꺼려 토끼로 둔갑시키는 조작극을 꾸몄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도할 수가 없어 명산이라는 명산은 다 찾아다니며 그 맥을 끊겠다고 산줄기마다 깊이 파서 쇠기둥을 박아넣은 다음 흙으로 덮는 것도 모자라 두꺼운 시멘트 땡질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정기나 기상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전설을 간직한 석상들을 일일이 깨부수는가 하면, 그런 바위들을 찾아내 산봉우리에서 골짜기로 굴러내리는 짓을 자행했다. 미국이나 소련이 아니었다라도 일본놈들의 강압지배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반도땅의 기상을 일본놈들로서는 꺾을 도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반도땅에서 뿌리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장구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일본놈들이 가하는 수난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닌 민족이었다.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

운 저력에 받들려 장구한 역사는 위어져내린 것이며, 그 저력은 산 많고 평지 적은 악조건을 이겨내며 살아오는 동안 길러진 끈질긴 생명력이었다.

분노로 가득 찬 말투의 위의 내용들은 일본의 독자들로 하여금 곱끄러운 생각을 갖게 할 염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하소설이라는 자연스런 흐름 속에서 살려내고 있는 내용이므로, 일본의 독자라 하더라도 소설 읽기를 그만둘 정도로 거부감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설의 흐름에 깊이 빠져들다 보면, 현실로 존재하고 있는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 속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일본인이 아니라 당시의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인 바, 그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떳떳치 못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친일적 우익 세력들과 어중간한 입장에서 주도적이지 못했던 민중들의 후손이 바로 현재의 한국인 자신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독자들이 『태백산맥』을 통해서 과거 조상들의 모습과 스스로의 현재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래의 『태백산맥』이야말로 민족통일의 위업에 바짝 다가설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우리 스스로가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독자들에게도 원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시나리오 형식의 문장이 서술체로 변형된 것에 대한 의문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수세에 몰린 인민군이 후퇴를 시작하자 별교에 주둔해 있던 인민군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인민군편에 가담하였던 주민들과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 집에서는 다시금 산속으로 활동근거지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곤경에 처한 별교 주민들의 동요를 다섯 가족으로 나누어 시나리오 형식의 문장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일본어 번역본에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이러한 시나리오 형식의 문장을 서술체의 문장으로 모두 바꾸어 놓았다. 본고에서는 『태백산맥』 제7권(원작 197-9쪽, 번역본 247-251쪽)에 수록되어 있는 다섯 장면 가운데에서 첫 장면만을 비교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원작의 시나리오 내용을 소개한 뒤, 그에 대한 일본어판의 번역을 싣고 다시 그 내용을 필자의 임의로 우리말로 덧붙여 보았다.

— (『태백산맥』 제7권 원작 197 쪽

〈장면 1. 주막〉

김복동 : 자네 위쩨랑가?

마삼수 : 안 델꼬 간다고 혀도 따라나설 판인디 델꼬 간다는 디야 얼씨구나 아니겠소? 성님언 안 가게라?

김복동 : 나 목숨이 둘이간디?

마삼수 : 맞소. 앉어서 죽으나 입산해서 한바탕 하고 죽으나 죽기사 매일반잉께요. 쫓 달린 사내 새끼 죽는 꼬라지가 어느 편짜이 낫겠소?

김복동 : 두말허면 잔소리제. 뜨도록 허세!(뽕초를 내던지며 벌떡 일어선다.)

— (번역본 247쪽)

金福東と馬三洙が、居酒屋で向かい合っていた。

김복동과 마삼수가 주막에서 마주 앉아 있다.

「お前、どうするつもりだ」

「자네 어쩔 셈이야?」

金福東が訊いた。

김복동이 물었다.

「連れて行かねえと言われたってついて行くつもりだったのに、連れて行くっちゃうんだから万々歳じゃねえか。兄貴は行かねえのか」

「테리고 가지 않는다고 혀도 따라갈 판인디 테리고 간다는디 얼씨구나 아니겠소? 형님은 안가시오?」

「命は一つしかねえもんな」

「목숨이 둘이간디?」

「そりゃそうさ。だども何もしねえで死のうが、入山してひと暴れして死のうが、死ぬことに変わりはない。だったらどっちが男らしい死に方だよ」

「맞소.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나 입산해서 한바탕 하고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잉께요. 그렇담 어느 쪽이 남자다운 죽음이겠소?」

「ええい、ぐだぐだ言っても始まらねえ。行くことにしよう！」

「에-이, 장황하게 말허면 머하건는가. 가도록 허세」

金福東はそう言うと、煙草の吸い殻を投げ捨ててすっと立ち上がった。

김복동은 말을 마치자 담배꽂초를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다.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시나리오 형식의 문장을 서술체로 바꾼 연유를 필자는 짐작하기 어렵다. 작가 조정래가 서술체의 문장으로 쓰지 않고 시나리오 형식의 글을 쓴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나, 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바꾸어버린 것은 또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일까. 가령 원 작가인 조정래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문점은 여전히 가지질 않는다.

3. 맺음말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 전 10권을 통하여 오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서너 곳에 불과 하였다. 이로서 대단히 치밀한 번역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 거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필자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즉, 전라도 방언을 살리기 위한 자유 분방한 노력이 오히려 원작에 충실해야 할 번역자로서의 기본자세를 흐트러지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기우와 같은 생각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원작과 번역본의 비교 연구에 임한 필자는 번역의 상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논술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밝혀 두고 싶다. 오랜 시간과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완성한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은,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의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탄생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필자의 논고는 이러한 번역자들의 노력에 대해 사족을 붙이는 정도의 작업에 불과한 것일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렇듯 위대한 성과로 탄생한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에 있어서 필자의 논고가 약간의 보충적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 아닐까 싶다. 『태백산맥』 일본어 번역본 출간을 계기로 번역이 갖고 있는 한계와 번역자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參考文獻】

- 조정래(1986-1989) 『태백산맥』 전10권, (주)도서출판 한길사.
- 조정래(2001) 『태백산맥』 전10권, (주)해냄출판사.
- 趙廷來(1999-2000) 『太白山脈』 全10卷, (株)集英社.
- 고은 외 7명(1991) 『문화와 역사와 인간—『태백산맥』의 소설적 성과와 통일문학의 전망—』, (주)도서출판 한길사, 28,116쪽.
- 권영민(2003) 『태백산맥 다시 읽기』, (주)해냄출판사, 304, 305쪽.

要 旨

趙廷來の『太白山脈』日本語翻譯本は、本格的な韓國文學の日本への紹介であり、韓國の近・現代の熾烈で凄慘な歴史を日本の讀者に知ってもらえるといったところに大きな意義がある。

つまりは、この『太白山脈』日本語版をもって、現在の朝鮮半島の分斷と民族の分裂が日本帝國の朝鮮半島支配からその端を發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認識してもらい、植民地支配があったからこそ現在のよな近代化された韓國が存在し得るのだといったような馬鹿げた論理が展開できる人がいなくなることを願って止まない。ということから、筆者は今回の翻譯に長い期間、全力を盡して携わってきた方々に心から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たい。

しかしながら、一國の文學を他國の言語で翻譯する場合、必然として付きまとう限界がある。『太白山脈』でも例外は認められなかった。それは『太白山脈』が翻譯ではとうてい乗り越えられないほどの朝鮮民族獨特の民族的大河小説だったからである。

本稿では細かいところまで根掘り葉掘り論じているが、だからといって趙廷來の『太白山脈』の日本語翻譯本の存在価値と意義が損傷されるとは思っていない。私が蛇足を加えて論じているところは、大きな成果として生まれてきた『太白山脈』の日本語翻譯本において、少しでも補充的な役割が果たせたらと思っていたからに他ならない。

キーワード：『太白山脈』、日本語翻譯、標準語、全羅道方言、原文省略、見出しの変形、シナリオ形式、原文縮小、誤譯、内容変形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301-773)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삼부아파트6 동53 호
電 話 : 042-523-2709/016-413-5841
e-mail : ulsasuca@hanmail.net